

# 조선대 양궁부 '금빛 과녁' 정조준

이진용 김정훈 이성준 등 3명으로 남자팀 공식 창단 올해 아시안컵·중별양궁 등 국내외 대회 메달 획득 광주 초·중·고·대 남자 양궁선수 연계 육성 체계화

조선대학교 양궁부가 정식 창단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조선대는 13일 입학식 세미나실에서 백남길 광주시체육회 부회장,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신상호 대한양궁협회 본부장, 윤종찬 광주시양궁협회 상임부회장, 이계형 조선대 체육대학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자양궁부 창단식을 가졌다.

양궁부는 광주체고 출신의 이성준(2년)과 김정훈(1년), 그리고 서울체고를 졸업한 이진용(1년)으로 구성됐으며 김현우 교육대학원 교수(체육교육)가 감독을 맡았다.

조선대는 지난해 이성준과 공시현(현재 군복무)이 입학하면서 양궁 선수 육성을 시작했으며 올해 이진용, 김정훈이 합류하면서 양궁부를 구성했다.

광주는 여자선수들의 경우 초·중·고를 거쳐 광주여대, 광주시청으로 연계 육성이 가능하지만 남자선수들의 경우 실업팀이 없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계 육성이 쉽지 않았다. 그동안 남자선수들은 타 지역의 대학이나 실업팀으로 떠나야 했다. 광주양궁계에서는 이번 남자대학팀 창단으로 남자실업팀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리중과 광주체고를 졸업한 이성준은 지난해 전국체전 혼성단체전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진용과 김정훈은 올 시즌 국내외 대회에서 메달 레이스를 펼치는 중이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30m 은메달과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고교 3년간 은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기록했던 이진용은 차세대 양궁 에이스다. 최



조선대학교 양궁부가 13일 학교 입학식 세미나실에서 창단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근 열린 2019 아시안컵 양궁 2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지난달에는 제22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50m 동메달, 대통령기 양궁 개인전 동메달을 기록했다.

김정훈도 광주체고 2학년이던 제98회 전국체전에서 50m 금메달을 획득한

유망주다. 지난 4월 전국남여양궁중별 선수권대회 개인전 은메달에 이어 지난 달에는 제22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5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진용은 오는 19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2019유스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며 이날 말에는 김정훈과 함께

2020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참가한다.

김현우 감독은 "이진용이 유스선수권에 출전한 뒤 오는 10월에는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메달에 도전한다"며 "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선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 S 스포츠

14 전남매일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MLB 최저 평균자책점 역대 5위**  
류현진, 정규리그 개막 후 22경기 기준 역대 5번째로 낮은 평균자책점 기록

|                 |       |
|-----------------|-------|
| 밥 김슨 (1968년)    | 0.96  |
| 루이스 티안트 (1968년) | 1.25  |
| 베이다 볼루 (1971년)  | 1.42  |
| 로저 클레먼스 (2005년) | 1.450 |
| 류현진 (2019년 현재)  | 1.451 |

### MLB 후반기 역사적 볼거리 류현진 평균자책점 신기록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다저스)의 평균자책점은 이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관계자와 언론, 팬들의 시선을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기록이 됐다.

MLB닷컴은 13일(한국시간) 후반기에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11개 역사적인 기록을 예상했다.

그중 하나가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이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마운드의 높이가 낮아진 1969년 이래 가장 낮은 시즌 평균자책점에 도전한다고 소개했다.

류현진은 1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투구로 시즌 12승과 한미통산 150승을 동시에 수확하고 평균자책점을 1.45로 끌어 내렸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최근 17차례 선발 등판에서 15번이나 1자책점 이하로 던졌으며 그가 역사적인 영역에 비껴 다가서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1985년 뉴욕 메츠의 드와이트 구든(1.53)을 넘어 류현진이 1969년 이래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가운데 가장 낮은 평균자책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의 반발력이 높아진 1920년 이래 메이저리그는 '라이브 볼 시대'에 접어들었다. 자연스럽게 타자들은 예전보다 활발한 공격을 펼쳤다.

1968년 밥 김슨(당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라이브 볼 시대 최저 평균자책점인 1.12를 남겼다.

라이브 볼 시대에 평균자책점 1.50 이하로 시즌을 마친 유일한 투수다.

그해 김슨을 포함해 7명의 평균자책점 1점대 투수가 탄생하는 등 투고타자가 득세하자 메이저리그는 이듬해인 1969년부터 마운드 높이를 종전 최대 15인치(약 38cm)에서 10인치(25.4cm)로 낮춰 공수 균형을 꾀했다.

류현진이 지금의 평균자책점을 유지하거나 이를 더욱 떨어뜨린다면 1969년 이래 최저 평균자책점 신기록을 수립할 수 있다.

MLB닷컴은 압도적인 투구를 펼친 2018년 제이컵 디그롬(메츠·1.70), 2014년 클레이턴 커쇼(다저스·1.77), 2015년 잭 그레이키(당시 다저스·1.66)의 예를 들며 류현진이 남은 기간 평균자책점을 더욱 낮추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밖에 크리스천 엘리치(밀워키 브루어스)의 사상 첫 50홀런-30도루 도전, 로날드 아루나 주니어(애들랜타 브레이브스)의 40홀런-40도루 달성 등도 기대를 품게 하는 기록으로 거론됐다.

/연합뉴스



**강력한 한방** 12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웨스턴 앤 서던오픈 첫날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가 엘리스 리스크를 상대로 공격하고 있다. 샤라포바가 2-0으로 이겼다. /AFP·연합뉴스

### 샤라포바, 엘리스 리스크 제압 웨스턴 앤 서던오픈 2회전 진출

'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97위·러시아)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웨스턴 앤 서던오픈(총상금 294만4,486달러) 2회전에 진출했다.

샤라포바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대회 첫날 단식 본선 1회전에서 엘리스 리스크(37위·미국)를 2-0(6-37-67-4)으로 제압했다.

올해 워블던 8강까지 올랐던 리스크를 꺾은 샤라포바는 이번 대회 톱 시드를 받은 애슐리 바티(2위·호주)와 16강 진출을 다룬다.

7월 워블던 1회전 경기 도중 손목 부상으로 기권한 샤라포바는 워블던 이후 지난주 로저스컵에서 복귀전을 치렀으나 역시 1회전에서 탈락한 바 있다.

6월 마요르카오픈 2회전 진출 이후 약 2개월 만에 승리를 맛본 샤라포바는 올해 1월 호주오픈 16강에서 만나 1-2(6-4 1-6 4-6)로 패한 바티를 상대로 설욕을 노린다.

2011년 웨스턴 앤 서던오픈에서 우승한 샤라포바는 2014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이 대회에 출전했다.

샤라포바와 바티의 상대 전적은 1승 1패로 팽팽하다. /연합뉴스

## 프로야구 관중 4년 만에 700만명대 ↓

신구장 건립 NC 제외

9개 구단 일제 감소

KIA 홈경기 -29%

평균관중 1만명 안돼

프로야구 관중이 4년 만에 700만명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롯데 KBO 사무총장은 13일 "올 시즌 관중이 800만명을 넘기기는 사실상 힘들다"라며 "2년 연속 관중이 감소했는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새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2019 KBO리그는 전반기 전체 일정의 75%인 542경기를 치른 결과 569만6,913명이 입장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617만7,475명보다 8% 감소한 수치다.

KBO 사무국은 현재 추세라면 올 시즌 관중이 지난해(807만3,742명)보다 50만~60만명가량 줄어든 750만~760만명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10개 구단이 목표표로 내세웠던 878만명보다는 100만

구단별 관중 현황(8월 12일 현재)

| 구장  | 홈경기 | 구단별 총 관중  |           | 구단별 평균관중 |        | 증감(%) |
|-----|-----|-----------|-----------|----------|--------|-------|
|     |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
| 한화  | 51  | 512,801   | 427,896   | 10,055   | 8,390  | -17   |
| LG  | 54  | 881,914   | 760,831   | 16,332   | 14,089 | -14   |
| KIA | 56  | 689,029   | 555,577   | 12,304   | 9,921  | -29   |
| KT  | 52  | 476,299   | 412,003   | 9,160    | 7,923  | -13   |
| 롯데  | 52  | 696,394   | 590,728   | 13,392   | 11,360 | -15   |
| NC  | 55  | 346,480   | 550,232   | 6,300    | 10,004 | 59    |
| 두산  | 55  | 842,306   | 749,256   | 15,315   | 13,623 | -11   |
| SK  | 54  | 784,039   | 751,481   | 14,519   | 13,916 | -4    |
| 삼성  | 53  | 538,386   | 531,572   | 10,158   | 10,030 | -1    |
| 키움  | 60  | 409,827   | 367,337   | 6,830    | 6,122  | -10   |
| 합계  | 542 | 6,177,475 | 5,696,913 | 11,398   | 10,511 | -8    |

명 이상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단별로는 올 시즌 새 구장인 창원 NC파크를 건립한 NC 다이노스만 59% 증가했을 뿐 나머지 9개 구단의 관중이 일제히 감소했다.

NC의 '새 구장 효과'가 없었다면 KBO리그 전체 관중 감소 폭은 더욱 컸을 것이다.

KBO리그는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가파르게 성장했다.

2006년 시즌 관중이 300만명을 겨우 넘었던 프로야구는 2007년 400만명, 2008년 500만명을 차례로 돌파했고

2011년 600만명, 2012년 700만명대로 올라섰다.

2013년과 2014년에는 다시 600만명대로 주춤했으나 2015년 700만명대로 복귀한 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800만명 관중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해 관중 상승세가 5년 만에 꺾이면서 4%가량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롯데 KBO 사무총장은 "초반부터 5강 5약으로 나뉘는 등 10개 구단 전력 불균형으로 팬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병역 마친 골키퍼 최봉진 광주FC 복귀

광주 GK만 4명 치열한 경쟁 예고

아산 무궁화 축구단에서 병역을 마친 골키퍼 최봉진(27)이 광주FC에 복귀했다.

광주는 지난 2015-2017시즌 광주에서 뛰었던 최봉진이 13일 팀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경남에 입단했던 최봉진은 그해 7월 트레이드를 통해 K리그1 광주FC 유니폼을 입고 데뷔와 함께 13경기 17실점을 기록했다. 광주가 K리그1에 머물던 2016년과 2017년 각각 17경기와 10경기를 뛰었던 최봉진은 2017년 말 입대했다.

193cm, 83kg의 건장한 체격을 바탕으로 노련한 경기 운영과 민첩성이 뛰어난 최봉진은 2009년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17세 월드컵에도 참가한 경력이 있다.

광주 이적후 윤보상(26·현재 상주 상무)이 있어 백업 골키퍼로 활약했던 최봉진은 올시즌 아산에서 주전으로 활약, 15경기 15실점(1경

기 평균 1실점)으로 수문장 역할을 다 했다.

복귀한 광주에서는 치열한 생존경쟁에 맞닥뜨렸다. 광주는 현재 윤영국이 주전 수문장으로 자리한 가운데, 이진형, 김태근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내

년 1월에는 윤보상이 병역을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다.

광주 관계자는 "아산에서 K리그2를 뛰었지만 리그 최하실점의 윤영국이 있는데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진형까지 뒤를 받치고 있어 곧바로 경기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여름이적시장이 끝난 뒤 33명의 등록선수로 기록된 광주FC는 최봉진의 합류로 34명의 선수단을 보유하게 됐다. /최진화 기자

